



보도 일시	(지 면) 1. 4(수) 조간 (인터넷) 1. 3(화) 12:00	-
-------	---	---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신규호 (044-204-7712)
			주무관	김정훈 (044-204-7716)

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 -

- 모태펀드가 1,835억원 출자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으로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위기 속에서 투자 마중물 지속 공급
-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유인책(인센티브) 등 본격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 '22년 1~3분기 벤처투자 : 5조 3,752억원(전년 동기 대비 +599억원, +1.1%)

'22년 1~3분기 벤처펀드 결성 : 7조 517억원(전년 동기 대비 +1조 6,213억원, +29.9%)

** 신규벤처펀드 중 민간자금 비중(%) : ('20) 66.5 → ('21) 70.2 → ('22.1~9) 77.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약 1.1조원을 출자해 2.5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며, 2023년에도 투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해 3고(高) 위기 속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출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 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신인대전(루키리그)*에 출자한다.

* 신인대전(루키리그) 신청 자격 : 등록 3년 이내이면서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약정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원을 출자해 7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벤처펀드(모펀드)」에 330억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 충청 /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 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출자공고로 총 1,000억원을 출자해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에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 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LOC)·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 * ① 1차 결성시한 내에 최소결성액 대비 10% 이상 증액해 결성 완료한 경우 제재 면제
- ②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이 축소된 사유로 출자확약서(LOC), 의향서(LOI)가 변경된 경우 제재 면제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16일 10:00부터 31일(화) 14:00까지 온라인 (<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3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운영자산구성(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참고 1

'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분야별 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예산	결성목표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
청년창업	일반	130	217	60%	· 청년 창업기업
	루키	200	334	60%	
	소 계	330	550	60%	
여성기업		130	217	60%	· 여성기업
재도약		160	267	60%	· 폐업기업 재창업 등
M&A		350	700	50%	· 중소벤처 M&A
소재부품장비		300	500	60%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		330	330+α	-	· 지역 혁신기업 등
글로벌펀드(모펀드)		235	235+α	-	· 해외진출 지원 등
합 계		1,835	2,799+α	-	-

*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 글로벌펀드(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며, 접수일정 및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참고 2

모태펀드 벤처투자 촉진 유인책(인센티브)

□ 투자목표 연계 운용사 유인책(인센티브)

※ 기준 투자목표비율(%) : (결성일로부터 만 1년) 40 → (~만 2년) 70 → (~만 3년) 90

- 투자목표비율 초과달성 시, 초과분의 1%를 관리보수로 지급
- 투자목표비율 달성 시, 기준수익률(성과보수 지급기준) 0.5%p 하향
- 목표비율 달성 운용사의 차년도 출자사업 선정 우대 가점 부여

< 모태펀드 투자목표 연계 유인책(인센티브) 패키지 >

구 분		유인책(인센티브)(안)	적용시기
보수체계	관리보수	투자목표 초과 달성분의 1%를 관리보수로 추가 지급	'22.下~
	성과보수	투자목표 달성 시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 0.5%p 하향	
출자우대	평가방식	차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우대 가점	'22년말~

□ 신주 보통주 투자 운용사 유인책(인센티브)

- 전체 투자금액 중 60% 이상 창업·벤처기업의 신주 보통주 투자 시,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20%*를 운용사 추가성과보수로 지급

* (기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5% → (개선) 20%

□ 우선손실충당 확대(민간 출자자 유인책(인센티브))

- 손실발생 시, 민간 출자자에 우선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충당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 (기준) 모태펀드 출자금의 10% 이내 → (개선) 15% 이내